

清代 披領의 조형적 특성

박 현 정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전통패션문화전공

I. 서론

복식사 연구의 의의 중 하나는 고대 복식 자료를 현대 패션 디자인에 활용하는데 있다. 현대 패션디자이너들은 전통 복식의 스타일, 소재, 색, 문양 등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대 아시아 북방 민족들에게서 시작되어 중국 본토에 보편화되었으며 청조에는 관복의 구성품목으로 제도화된 披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清代 披領은 帝后 百官 및 命婦들이 착용했던 일종의 領飾이다. 綢緞으로 만들며 모난 형태로 龍이나 문양을 수놓고 가장자리 緣飾이 있다. 보통 옷 위에 꿰매어 붙이며 앞트임을 만들어 어깨 위에 걸쳐 목 아래에서 단추로 여미기도 한다. 朝服 전용으로 사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清代 披領 제도 분석을 통해 피령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清代 披領의 조형성을 고찰하기 위해 청조 관복제도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清會典圖』¹⁾를 주 자료로 분석하였으며, 『清史稿』輿服志²⁾와 清會典事例³⁾를 보조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관복에서 朝服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연구내용과 절차는 清朝 披領의 기원, 제도화 되는 과정, 완성된 관복제도에서의 신분과 등급에 따른 披領의 내용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조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형태, 소재, 색, 문양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III. 연구결과

1) 清會典圖(光緒25年(1899), 1991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券57 冠服1 - 券76 冠服20

2) 清史稿, 北京: 中華書局, 卷102 志77 輿服1 - 卷103 志78 輿服2

3) 清會典事例(光緒25年(1899), 1991影印本). 北京: 中華書局卷326 禮部37 冠服 - 券328 禮部39 冠服

1. 清代 披領의 기원

清代 朝服에는 별도의 領을 어깨에 덮게 되는데 이를 披領이라고 한다. 滿族이 披領을 언제부터 착용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들은 본래 북방 한랭한 지역에서 騎射 생활을 하던 민족이므로 수렵한 포획물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皮衣)을 즐겨 입었다. 披領 역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 가죽을 어깨에 걸쳤던 것으로 滿族 고유의 전통 복식이었다.

2. 清代 披領의 제도화

披領은 後金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착용되어 오던 滿族 고유의 전통 복식이었으며 努爾哈赤가 後金을 세운 이후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한 주요 사여품이었다가 天聰7년(1633)에 朝服의 구성 품목으로 제도화 된다.

3. 清代 신분에 따른 披領

1) 皇帝의 披領

황제의 披領은 함께 착용하는 朝服에 따라 세가지 종류가 있다.

冬朝服1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겉에 紫貂를 대었다. 이 경우는 가장 추운 계절에 착용하는 것으로 朝服의 소매단에는 薰貂, 피령의 겉면에는 紫貂를 댄다. 피령의 겉면에 동물 털이 노출되므로 문양은 없다.

冬朝服2와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石靑색이며 가장자리에 片金海龍緣을 대었다. 문양으로는 양쪽에 行龍 1마리씩을 수놓았다.

夏朝服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石靑색이며 가장자리에 片金緣을 대었다. 문양은 冬朝服2의 披領과 같이 양쪽에 行龍 1마리씩을 수놓았다.

2) 皇子·親王·郡王의 披領

皇子·親王·郡王의 披領 역시 황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함께 착용하는 朝服에 따라 세가지 종류가 있다.

冬朝服1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겉에 紫貂를 대었다. 역시 피령의 겉면에 동물 털이 노출되므로 문양은 없다.

冬朝服2와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石靑색이며 가장자리에 片金海龍緣을 대었다. 문양으로는 양쪽에 行龍 1마리씩을 수놓았다.

夏朝服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石靑색이며 가장자리에 片金緣을 대었다. 문양은 冬朝服2의 披領과 같이 양쪽에 行龍 1마리씩을 수놓았다.

3) 貝勒·貝子·固倫額駙·鎮國公·輔國公·和碩額駙의 披領

貝勒·貝子·固倫額駙·鎮國公·輔國公·和碩額駙의 披領 역시 황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함께 착용하는 朝服에 따라 세가지 종류가 있다.

冬朝服1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겉에 紫貂를 대었다. 역시 피령의 겉면에 동물 털이 노출되므로 문양은 없다.

冬朝服2와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石靑색이며 가장자리에 片金海龍緣을 대었다. 문양으로는 貝勒이하의 龍文이 아닌 文을 사용하여 양쪽에 行 1마리씩을 수놓았다.

夏朝服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石靑색이며 가장자리에 片金緣을 대었다. 문양은 冬朝服2의 披領과 같이 양쪽에 行 1마리씩을 수놓았다.

4) 民公·侯伯이하 文武四品官·奉恩將軍·縣君額駙의 披領

冬朝服1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겉에 紫貂를 대었다. 역시 피령의 겉면에 동물 털이 노출되므로 문양은 없다.

冬朝服2와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石靑색이며 가장자리에 片金海龍緣을 대었다. 문양으로는 貝勒이하의 龍文이 아닌 文을 사용하여 양쪽에 行 1마리씩을 수놓았다.

夏朝服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石靑색이며 가장자리에 片金緣을 대었다. 문양은 冬朝服2의 披領과 같이 양쪽에 行 1마리씩을 수놓았다.

5) 二等侍衛의 披領

二等侍衛는 겨울과 여름 공용으로 착용하는 한 종류의 朝服이 있다. 이 朝服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石靑色 緞을 사용하며, 문양에 대한 설명은 없다.

6) 文武五六七品官·鄉君額駙의 披領

文武五六七品官·鄉君額駙 역시 겨울과 여름 공용으로 착용하는 한 종류의 朝服이 있다. 이

朝服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石青色 緞을 사용하며, 문양에 대한 설명은 없다.

7) 三等侍衛·藍翎侍衛의 披領

三等侍衛·藍翎侍衛 역시 겨울과 여름 공용으로 착용하는 한 종류의 朝服이 있다. 이 朝服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文五品官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石青色 緞을 사용하며, 문양은 없다고 볼 수 있다.

8) 文武八九品, 未入流官의 披領

文武八九品, 未入流官 역시 겨울과 여름 공용으로 착용하는 한 종류의 朝服이 있다. 이 朝服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은 靑色 倭緞을 사용하며 문양은 없다.

9) 舉人·貢生·監生·生員의 披領

舉人·貢生·監生·生員 역시 겨울과 여름 공용으로 착용하는 한 종류의 公服이 있다. 이 公服과 함께 착용하는 披領의 장식은 각 袍와 같다고 하였으므로 舉人·貢生·監生은 靑色 綢에 藍緣을 대었으며 生員은 靑色 綢에 藍靑緣을 대었다. 문양은 없다.

4. 清代 披領의 조형성

1) 형태

양옆으로 긴 형태이며 양쪽 옆은 좁고 날카롭다. 중앙에 목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둥글게 구멍이 나 있으며 앞 중앙이 트여 있고 단추가 달려 있어 목 밑에서 여밀 수 있다.

2) 소재

披領의 소재로는 담비가죽인 貂, 海龍, 裝緞, 緞, 倭緞, 綢 등이 사용되었다.

3) 색

皇帝이하 和碩額駙까지는 紫色과 石靑色, 民公이하 文武七品官까지는 石靑色, 文武八品官까지는 靑色으로 주로 靑色 계열이 사용되었다.

4) 문양

皇帝이하 和碩額駙까지는 行龍, 民公이하 縣君額駙까지는 行을 하였으며 皇帝의 冬朝服¹에 착용하는 披領은 가죽의 털이 겉면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문양이 없고 二三等侍衛이하 生員까지의 披領에는 문양이 없다.

5) 세부장식

皇帝이하 賢君額駙까지는 片金海龍緣과 片金緣 장식이 있고, 士庶들의 披領에는 藍緣이 장식되어 있다.

IV. 참고문헌

- 清會典圖(光緒25年(1899), 1991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清史稿, 北京: 中華書局
清會典事例(光緒25年(1899), 1991影印本). 北京: 中華書局
國立故宮博物院編輯委員會(1986). 清代服飾展覽圖錄.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손경자 역(1995). 中國服飾5000年(下). 서울: 경춘사
宋龍飛 主編(1998). 衣袖展風情—清宮服飾之旅.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周錫保(1984).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周·高春明(1984). 中國歷代服飾, 上海: 學林出版社
黃能馥?陳娟娟(1999). 中華歷代服飾藝術. 北京: 中國旅遊出版社